

朝鮮時代 自編文集에 관한 考察

A Study on Japyeonmunjip in the Joseon Dynasty

정진웅 (Jung, Jin-Woong)*

◁ 목 차 ▷

1. 緒言	3.2 17-18세기
2. 自編文集의 編纂背景	3.3 19세기 이후
2.1 타인의 요구에 의한 편찬	4. 自編文集의 특징
2.2 자신의 의한 편찬	5. 結言
3. 自編文集의 現況	<참고문헌>
3.1 17세기 이전	

< 초 록 >

본고는 일반문집과 다른 자편문집을 분석함으로써 문집의 다양성 제시 등 문집 연구에 일조하고자 하였다. 저자 스스로 편찬한 문집을 대상으로 어떠한 배경에서 편찬하게 되었고, 자편문집이 시기별로 어느 시기에 성행하였고, 성행한 이유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자편문집이 일반 문집과 어떤 차별화된 특징이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자편문집은 타인요구 또는 저자 스스로에 의해서 편찬되었으며, 자신의 작품이 후세에 전해지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편찬되었다. 시기적으로 17-18세기에 성행하였는데 전쟁으로 인한 원고 보존의 문제, 한문사대가를 중심으로 지식인들의 문집 의식 변화 등으로 성행하였다. 자편문집은 일반문집과 달리 다양한 편차체제, 내용 구성의 차이, 작품에 대한 주석 등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要語: 自編, 文集

*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고서전문원(j1118w@korea.kr)

접수일: 2009년 12월 5일 최초심사일: 2009년 12월 6일 심사완료일: 2009년 12월 12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japyeonmunjip*, that is, collections of writings compiled by an author himself, in order to present their differences from general collections of works and then contribute to the advancement of research into anthologies.

In this study, analyzed are the background of compiling *japyeonmunjip*, the period when they became widespread and the reason for such prevalence. And their characteristics different from those of general collections of works are also examined.

Japyeonmunjips were published by either authors themselves or other people to hand down their works to posterity. The publication of *japyeonmunjip* was popular during the 17th and the 18th century, because of the need for preserving writings from wars and the changes in the perception of writing collections among intellectuals, including four great masters of Chinese writings, etc. When compared with general anthology, *japyeonmunjips* show differences in the aspects of a variety of contents, organization of contents, comments on works, and so on.

Key words: japyeon, anthology

1. 緒言

조선 초기 주로 왕실이나 관아에서 간행된 문집은 후기에 들어 왕실, 관아, 사찰, 민간 등 다양한 장소에서 많은 양의 문집들이 간행되었다. 이러한 문집들은 현전하고 있어 사료로써 널리 이용되고 있지만 정작 문집 자체에 대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우리가 흔히 ‘문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이러한 용어가 언제부터 사용되었고, 최초의 문집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 또한, 문집의 체제가 언제, 어떻게, 왜 이렇게 이뤄졌는지도 명확히 판별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문집은 제자나 후손들에 의해서 편찬되었다. 그러나 저자 스스로 편찬한 문집들도 보이고 있다. 고려시대 이규보의 『東國李相國集』, 이인로의 『雙明齋集』, 『銀臺集』, 조선시대 『記言』 등이 그것이다.

이렇게 저자 스스로 편찬한 문집은 일반적인 문집들과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일반문집과 다른 자편문집¹⁾을 분석함으로써 문집이 가진 다양한 체제, 내용 등을 제시하여 문집 자체를 연구하고 정립시키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자편문집의 대한 조사는 일차적으로 저자가 직접 작성한 서문과 발문이 수록된 문집²⁾과 목차를 분석하여 특징이 보이는 문집을 선별하였다. 또한 다른 여러 기록들에서 저자 스스로 편찬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면 목록에 추가하였다. 이차적으로 이렇게 수집된 목록 중에서 初刊本 이외의 중간본,³⁾ 필사본은 제외시켰고, 기록은 보이지만 자편문집의 특징이 보이지 않는 것은 제외하였다.⁴⁾ 이렇게 조사

1) 自編이라는 용어는 任昌淳, 『文集雜稿』 『한국학문헌 연구의 현황과 전망』 (아세아문화사, 1983)에서 보이는데 그는 문집의 종류를 설명하면서 저자 스스로 편찬한 自編과 타인에 의한 편찬인 他編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본고에서도 저자 스스로 편찬한 문집을 자편문집이라 통칭한다.

2) 저자가 직접 서문과 발문을 작성하였다면 편찬도 하였을 것이라 추정하였다. 실제 自序와 自跋을 보면 스스로 편찬하였다는 기록들이 보인다.

3) 초간본만이 저자의 편찬 의도에 맞게 내용들이 수록되었고, 이후 중간본들은 후대에 저자의 글들을 다시 수집하고 산정하여 수록하였기 때문에 저자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간행되었다.

4) 저자가 편찬하였다는 기록이 있더라도 간행을 준비하면서 후손이나 제자들이 다시 편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저자가 편찬한 체제 및 수록 내용이 달라진 경우도 있어 제외하였다.

된 자편문집은 총 42종이다.

본고에서는 조사된 42종의 자편문집을 바탕으로 自序 및 自跋 그리고 관련 기록 등을 분석하여 자편문집이 어떠한 배경에서 편찬되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조사된 자편문집을 각 시기별로 구분하여 자편문집의 성행시기 및 성행하였던 이유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자편문집에서 보이는 편차체제, 수록내용 등을 분석하여 일반적인 문집과 어떤 차별화된 특징이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自編文集의 編纂背景

조선시대 자신의 문집이 후세에 전해진다는 것은 저자뿐만 아니라 후손, 제자들에게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하였다. 이것은 저자가 죽더라도 그의 글들이 후세에까지 읽히지 않으며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문집의 서문 등에서 저자의 글들이 산실되어 후세에 전하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는 글들과 저자의 글들을 모아 후세에 전해지기를 도모하는 내용의 글들은 많이 들어간다.

이 장에서는 자편문집이 편찬하게 된 배경은 자신이 쓴 서문이나 발문의 글들을 통해 유추해 낼 수 있는데, 크게 타인의 요구에 의한 편찬과 저자 스스로 편찬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2.1 타인의 요구에 의한 편찬

타인의 요구에 의한 편찬은 대표적으로 이산해 『鵝溪遺稿』를 들 수 있는데 『아계유고』 속에 수록된 箕城錄의 자발을 보면,

아들이 곁에 있어 말하기를 “옛날에 수집한 것이 겨우 천백분에 일도 남지 않았는데 지금은 모두 산실되었습니다. 원고들을 수집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편의 글귀도 전해지지 않을 것이니 후의 자손들이 어찌 선조의 유물을 볼 수 있겠습니까?”하였다.⁵⁾

위의 인용문처럼 아들이 아버지의 유묵을 후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자편 문집을 편찬하라고 요청하고 있다.

또한, 이경석 『白軒集』의 연보를 보면,

소은 신천익이 일찍이 공(백헌 이경석)에서 일러 말하기를 “선생님은 지워지지 않는 성대한 업적을 이루었으니 어찌 (원고를) 손수 산정하여 명산에 보관하려 하지 않으십니까?”하였다.⁶⁾

신천익은 이경석의 제자로서 스승이 이미 성대한 업적을 이룬 것이 있으니 손수 원고를 산정하여 후세에 전하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처럼 타의에 의한 자편문집은 문집의 성격상 문집이 반포되면 향촌사회에서 인정받게 되고 자신의 후손, 제자들의 宣揚의 증표가 될 수 있으므로⁷⁾ 후손이나 제자들이 간행을 위해 적극 권하고 있고 저자는 그들의 뜻을 부응하기 위해 스스로 편찬하고 있다.

2.2 자신의 의한 편찬

자편문집 중에는 타인의 요구에 의한 자편문집 외에 저자 스스로 편찬한 문집들도 많다.

대표적으로 『湖陰雜稿』인데 그의 자서에서,

간간이 동료의 무리들이 나에게 원고 수집을 권하고 후세에 전하는데 일삼아 했으나 감당할 수 없다. (중략) 낮에 앉고 밤에 누워있을 때에 옛날에 지은 것들은 염송하니 번민이 없어지고 편안함으로 상자 속에 보관한 것들은 검수하고 또 벗들에게서 취하였다. 약간의 편을 모으고 정리하여 몇 권으로 만들어서 나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을 갖추었다.⁸⁾

5) 『鵝溪遺稿』卷2. 箕城錄 跋. “兒子又在傍曰。昔之所輯。僅什一於千百。而今也竝喪之。此而不收。則無復有斷簡隻字之傳。而後之子孫。於何見父祖之遺墨乎。”

6) 『百軒集』年譜. “愼素隱天翊嘗謂公曰 公既有不朽盛業 何不手自刪定 藏之名山。”

7) 柳鐸一, “韓國 옛 文集의 樣態와 出版過程,” 『嶺南地方出版文化論考』(세종출판사, 2001), 381.

위의 인용문처럼 처음 謙辭로서 거절하지만 결국 저자 스스로 자신의 지은 작품들이 만족스럽고, 후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알아달라는 의미에서 문집을 스스로 편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호음유고 외에 『霽湖集』도 ‘호음의 뜻을 따른다.’⁹⁾고 자서로 기록하였고, 『松亭集』¹⁰⁾·『柳下集』¹¹⁾ 경우도 ‘자신이 시문에 힘을 쏟았고 이 문집을 보면 그것이 드러난다.’ 라고 하여 결국 후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알아주길 바라는 의미에서 문집을 자편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자편문집은 자의든 타의든 간에 자기의 작품에 대한 만족감과 자신감을 가진 자가 그의 작품들이 산실되지 않고 후세에 전해져 자신을 알아주고 잊혀지지 않으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스스로 편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자편 문집이 편찬하는 인물들은 다음 장의 현황에서 보면 알겠지만 자기 작품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사람 특히 남달에게서 문학적·학문적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의 문집에서 많이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自編文集의 現況

3.1 17세기 이전

고려시대에는 이규보의 『東國李相國集』 등 저자 스스로 편찬하고 간행한 문집들이 몇몇 보이지만 조선이 개국하고 한 동안 자편문집에 대한 기록과 형태가 보이는 않는 점으로 미루볼 때 고려시대 문집에 대한 의식과 조선이 개국하고서의 문집에 대한 의식이 이어지지 않는 듯하다. 자편문집에 대한 기록은 성종연간에 들어와서

8) 『湖陰雜稿』自序. “間有同好之輩 勸余哀輯 以爲事涉傳後 益不敢當 (중략) 唯晝坐夜臥之時 念誦舊作 足以排悶遺寂 故檢諸篋笥之藏 又取交遊之間 摠若干編 釐爲幾卷 以備老年負喧之覽云.”

9) 『霽湖集』自跋. “...欲踵湖陰之意也.”

10) 『松亭集』自序. “...如有知我者 其必曰得寒泉之遺矣.”

11) 『柳下集』自序. “...俾後之覽者 知余於詩用力之本末如此云.”

야 보이는데 성종 14년 기사에 성종이 서거정에게 시문을 올리라는 기사¹²⁾와 왕이 그 시문을 열람하고 의문을 물어보는 기사가 나오나, 서거정 『四佳集』의 초간본은 현전하지 않고, 중간본만 현전하는데 그 형태가 자편문집의 형태를 띠고 있지 않다.

현전하는 자편문집은 16세기 후반에 들어와서야 『湖陰雜稿』, 『汲古遺稿』, 『愚得錄』, 『霽峯集』 등이 현전하는데, 이경석의 『百軒集』 연보에서 제자가 손수 원고를 산정해줄 것을 묻자 이경석이 “옛사람 중에 이러한 경우가 있었나?”¹³⁾고 반문하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경석 당대에는 자편이 이뤄지고 있었지만 그 이전 시대에는 이뤄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17세기 초에 자편한 양우경의 『霽湖集』 서문에서 湖陰(鄭士龍)의 뜻을 따라 자신도 자편 한다는 글을 남겼다는 것을 볼 때 정사룡 이전의 시대에는 자편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유추할 수 있고 이전시대 자편문집이 현전하지 않기 때문에 호음잡고가 조선시대 자편문집의 시작이라 볼 수 있다.

16세기 중반 이전까지 자편문집이 보이지 않는 것은 문집은 당대에 학식 있는 인물들이 작품을 남기는 것이라는 의식이 강했고, 자신의 작품이 후세에 남겨 자신의 이름을 더럽힐까 조심하는 생각이 강했다. 이에 따라 남기지 않으려고 원고를 불태워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러나 앞서 호음잡고의 자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반대로 자신의 작품에 대한 만족감과 자신감을 가진 인물들이 하나 둘 등장하면서 자편문집에 대한 의식이 달라졌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1> 17세기 이전 자편문집

서명	성명(생몰년)	판종	간년	권책수	비고
湖陰雜稿	鄭士龍(1491-1570)	목활자	1573	8권8책	시록별편차. 자서
汲古遺稿	李洪南(1515-1572)	목판	1617	3권2책	일정한 체제 없음
愚得錄	鄭介淸(1529-1590)	목판	1692	원집2권	내용별편차
霽峯集	高敬命(1533-1592)	목판	1617	원집5권	연도별편차

12) 『成宗實錄』 卷152. 癸卯條. “上命徐居正, 編次姜希孟遺藁以進, 仍命居正, 進所著詩文.” 생전에 시문집을 올리라는 말은 저자가 자편한 시문집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13) 『百軒集』 年譜. “愼素隱天翊嘗謂公曰 公既有不朽盛業 何不手自刪定 藏之名山 公笑曰 古人或有此事.”

3.2 17세기-18세기

16세기 말부터 등장한 자편문집은 17-18세기에 이르러 절정을 이루었다. 현전하는 대다수의 자편문집들은 이 시기의 문집들로 약 70%를 이루고 있다. 이 시기에 많은 양의 자편문집들이 등장한 배경에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과는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양란으로 인하여 개개인의 작품들이 상당부분 손실되었고¹⁴⁾ 그로 인해 저자 스스로 자신의 작품을 정리하고 편찬하지 않으면 후세에 전할 길이 없음을 인식하였을 것이다.

이 시기에 주목할 점은 당대 문단을 주도하고 있었던 한문 사대가(象村 申欽, 月沙 李廷龜, 溪谷 張維, 澤堂 李植)들이 스스로 자신의 문집을 정리하고 편찬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스스로 문집을 편찬하였다는 것이다. 이들은 당대에 문명을 떨치고 있었고, 여러 인사들에게 문장의 모범이 되고 있었다. 이들 사대가들도 자신의 시문을 굳이 숨기려 하지 않고 후세에 전해서 자신의 명성과 문장이 잊혀지지 않길 바란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당대의 지식인들에게 영향을 끼쳐 文名을 드러낸 인물들은 자신의 문집을 남겨 후세 사람들이 자신이 잊지 못하게 하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 시기에 한 집안에서 대대로 자편하는 문집들이 보인다.全州李氏 芝峯 李暉光의 집안으로 그의 아들 東州 李敏求, 증손 遊齋 李玄錫, 증손 景淵堂 李玄祚의 문집들이 그것이다. 이들 문집들은 모두 시록별로 편찬하였다는 특징과 書簡 등의 양이 타 문집과 비교할 때 적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들 집안은 지봉 이수광의 뜻을 따라 선조를 본받고 家學을 전승한다는 의미에서 스스로 편찬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집안은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자신들의 문집을 남겨서 후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잊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하였다.¹⁵⁾

14) 당시 서발문 등 많은 글들에서 이런 내용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한 예로 李昭漢의 『玄州集』 발문 “平日所著述 不爲不多 而散失於江都兵燹”을 들 수 있다.

15) 李暉光의 『芝峯集』, 李敏求의 『東州集』에는 “有文爲不朽 有子爲不死”라는 문장이 공통적으로 보이는데 ‘문집을 남기면 자신은 잊혀지지 않고, 자손이 있으면 죽지 않는다.’는 뜻으로 문집의 존재 가치를 보여준 것이다.

<표 2> 17-18세기 자편문집

서명	저자	관종	간년	권책수	비고
藥圃集	鄭琢(1526-1605)	목관	1760	7권4책	연도별편차
桑榆集	柳思規(1534-1607)	목관	1618	2권1책	일정한 체제 없음
簡易集	崔昱(1539-1612)	훈련도감자	1631	9권9책	편차특이(시록별편차)
松亭集	河受一(1553-1612)	목관	1788	6권3책	자서
象村稿	申欽(1566-1628)	목활자	1629	63권20책	연도별편차, 자서
芝峯集	李暉光(1563-1628)	목관	1633	자편 31권	
霽湖集	梁慶愚(1568-1629)	목활자	1647	원집11권	자발
月沙集	李廷龜(1564-1635)	목관	1636	74권24책	시록별편차
東岳集	李安訥(1571-1637)	목관	1639	자편21권	
谿谷集	張維(1587-1638)	목관	1643	원집34권	자서
石樓遺稿	李慶全(1567-1644)	목관	1659	4권4책	연도별편차
玄州集	李昭漢(1598-1645)	무신자	1674	7권2책	시록별편차, 자주
澤堂集	李植(1584-1647)	목관	1674	원집10권, 속집4권	연도별편차
玄谷集	曹緯韓(1567-1649)	목관	1657	14권3책	
畸庵集	鄭弘溟(1582-1650)	목관	1653	10권4책	
淸陰集	金尙憲(1570-1652)	목관	1653	40권16책	자서
漫浪集	黃皓(1604-1656)	목관	1669	9권4책	시록별편차
玄州集	尹新之(1582-1657)	목관	미상	13권5책	시록별편차
東州集	李敏求(1589-1670)	목관	미상	43권13책	시록별편차, 자서
百軒集	李景奭(1595-1671)	교서관인서체	1700	56권18책	시록별편차
東溟集	鄭斗卿(1597-1673)	목관	1712	11권13책	
記言	許穆(1595-1682)	목관	1692경	원집	일정한 체제없음, 자서
壺谷集	南龍翼(1628-1692)	목관	1695경	18권9책	문체·편차특이
西溪集	朴世堂(1629-1703)	목관	17C말	16권8책	시록별편차
遊齋集	李玄錫(1647-1703)	목활자	18C초	24권8책	시록별편차
景淵堂集	李玄祚(1654-1710)	목활자	1788	6권3책	시록별편차, 자주
夢巖集	南克寬(1689-1714)	교서관인서체	1723경	2권1책	연도별편차, 자서
明谷集	崔錫鼎(1646-1715)	목관	1721	13권15책	시록별편차, 자주
北軒集	金春澤(1670-1717)	교서관인서체	1760	20권7책	시록별편차
老稼齋集	金昌業(1658-1721)	목관	1798	원집5권	시록별편차
柳下集	洪世泰(1653-1725)	교서관인서체	1730	14권6책	자서
華谷集	黃宅厚(1687-1737)	교서관인서체	1794	4권1책	시록별편차
月谷集	吳瑗(1700-1740)	교서관인서체	1752	14권7책	연도별편차
雷淵集	南有容(1698-1773)	한구자	1778	30권15책	
良翁集	李獻慶(1719-1791)	목관	1795경	24권12책	

3.3 19세기 이후

19세기에 이르러 조선의 인쇄 문화는 족보와 문집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 둘은 이전 관이나 사찰에서 주도하던 인쇄가 민간에 이르러 다양한 판본들이 등장하였다. 문집의 경우 17세기 이전의 간본은 350여종, 17-18세기 1300여종, 19세기에 800여종¹⁶⁾ 등 많은 양의 문집들이 간행되었지만 자편 문집의 양은 이전 시기와 비교할 때 상당히 줄어들었다.

19세기 간행된 자편문집 중 정범조의 『海左集』, 홍량호의 『耳溪集』의 경우 그 인물들이 대부분 17세기 말에 활동했던 인물들인 점을 감안하면 19세기 자편문집은 남공철의 『金陵集』 뿐이다.

이처럼 19세기 들어와 저자 스스로 편찬한 문집이 급격히 줄어든 것에는 성리학 당시 사회 분위기와 연관 있을 것이다.

조선후기 송시열이 등장하면서 조선성리학은 점차 심화되었고, 그 학설의 중심에는 心學이 자리 잡고 있었다.¹⁷⁾ 심학이라는 것은 자신의 수양을 강조하는 것으로 자신에게 겸손하기를 요구할 뿐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수양이 덜 된 사람으로 여겼다. 이러한 성리학과 전쟁 및 기타 재난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이 원고를 관리하고 편찬하지 않아도 자손이나 제자들이 선조와 스승을 표창하기 위해 문집 간행에 심혈을 기울이던 당시 사회상을 비춰보면 당연한 결과로 여겨진다.

금릉집은 이전 자편문집들과는 다른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전 문집들은 저자 스스로 편찬하였더라도 저자 생전에 간행까지는 이뤄지지 않았는데 금릉집은 저자 생존에 한 차례도 아닌 여러 차례 속집의 형태를 취하면서 간행되었다. 생전에 간행된 문집은 고려시대 간행된 몇몇 문집들이 현전하고 있지만 조선조에 들어와서는 금릉집 이전에 밝혀진 것이 없다. 이산해의 『箕城錄』처럼 문집 속의 일부분을 뽑아 간행한 것은 있지만 시문집 전체를 저자 생전에 간행한 것은 밝혀지지 않았다. 조선조에 남공철과 같이 고관의 벼슬을 하고 있었고 당대에 간행할

16) 신승운, “유교사회의 출판문화,” 『대동문화연구』 제39집(2001), 370. <표 1> 참조.

17) 지두환, 『조선성리학과 문화』 (역사문화, 2009), 54-55.

수 있을 만큼 재력이 있었던 인물들은 많았다. 그러나 그들은 생전에 문집을 남기지 않고 후대에 자손이나 제자들의 손에 의해 간행되었는데 금릉집은 이채롭게 저자 생존시에 간행되었던 것이다.

<표 3> 19세기 이후 자편문집

서명	저자(생몰년)	관종	간년	권책수	비고
海左集	丁範祖(1723-1801)	목활자	1867	39권19책	자서
耳溪集	洪良浩(1724-1802)	전사자	1843	원집38권	시록별편차
金陵集	南公轍(1760-1840)	취진자	1815~	24권12책	생전문집

4. 自編文集의 특징

앞에서 자편 문집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럼 자편문집은 조선시대 간행된 일반적인 문집들과는 다른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를 살펴보겠다.

첫째, 다양한 체제의 편차

문집의 기본적인 체제는 서문·목록·본문·부록·발문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서문은 당대 학식과 명망이 있는 사람들에게 청탁하여 글을 받고 신는다. 본문은 일반적으로 운문이 앞에 수록되고 뒤에 산문이 수록된다. 그리고 부록으로 저자의 업적을 기른 행장, 묘지명, 연보 등이 수록되고 마지막으로 문집의 편찬과 간행 배경 등이 수록된 발문이 수록된다.¹⁸⁾ 그러한 예는 아래 표 『우암선생집』을 참고하면 알 수 있다.

그러나 자편한 문집의 경우 저자 스스로 편찬한 것이기 때문에 저자의 의도에 맞게 체제가 구축된 것이 특징이다.

아래의 표에서 『壺谷集』을 보면 시체에 있어서도 보통 오언이 먼저 편차되고

18) 김윤제, “조선시대 문집 간행과 성리학,” 『한국사 시민강좌』 제37집(2005), 77-78.

다음 칠언이 편차되는데 반해 칠언이 먼저 편차되었고, 다음으로 오언이 편차되었다. 이는 저자가 1687년에 교서관인서체자로 별도 간행한 『箕雅』 自序에서 이유를 밝히고 있다. “古詩와 排律을 律詩와 絶句보다 적게 실은 것은 우리나라의 古詩가 中華보다 크게 미치지 못하고 排律은 원래 쓰기에 적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七言이 五言보다 많은 것은 詩家들이 七字律詩에 힘을 가장 많이 들이고 五字絶句에는 工巧한 사람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¹⁹⁾ 하여 자신의 詩論에 대한 의견을 밝혔고 이런 시론은 자신이 편찬한 문집에도 적용되어 편차되었던 것이다. 또한 각 시체 다음에 시체나 문체 관계없이 특정한 사건이나 시기 등을 묶어 扶桑錄, 燕行錄, 應製錄 등 각각의 편명을 만들어 편차한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편명을 만드는 것은 후손이나 제자들이 쉽게 만들 수 없는 것으로 저자가 자신에게 일어났던 사건이나 시기 등을 묶어 직접 명칭을 부여한 것이다.

표의 『簡易集』의 경우 보통 시가 앞에 수록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奏-封事-陳言-表箋-문書 등의 事大文字가 앞에 수록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간이집의 저자 최립은 생존 당시 외교문서를 주로 관장했었던 인물이었다 만큼 자신의 특징을 살피 체제를 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런 사대문자 후에 각 문체별로 구분하여 편차하였고, 뒤에 四行文錄, 槐阮文錄, 辛巳行錄과 같이 특정 시기나 장소 등으로 편명을 만들어 수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표의 『愚得錄』의 경우 일정한 체제가 없이 우선 論學-釋義-論禮-論理 순으로 편차되어 있는데 이는 일반 문집의 잡저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는 저자가 운문과 산문으로 구성되는 일반 문집으로 편찬한 것이 아닌 일반 저술로서 편찬하려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운문도 수록되어 있는데 시체별로 편차한 것이 아니라 각 시들을 모아 체제 없이 수록하고 있다. 우득록 외에 허목의 『記言』 역시 이러한 편차 방식을 보이고 있다.

표의 『東州集』의 경우 운문은 시체별로 구분한 것이 아니고 특정 시기, 장소 등으로 편명을 만든 시록별로 편찬하였고 산문은 문체별로 각각 편찬한 것이

19) 『箕雅』 序. “古排 少於律絶者 我東古詩 大遜於中華 排律則元非適用故也 七言多於五言者 詩家用功極於七字律 而五字絶則工者絶無故也.”

특징이다. 동주집에서 보이는 시록별 편찬 방식은 「湖陰雜稿」, 「月沙集」 비롯한 자편 문집에서 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자편문집 편차의 특징이다.

이 밖에도 운문과 산문 각각 시체별, 문체별로 편차한 것이 아닌 저작한 연대순으로 편차되어 있는 자편문집들도 보이고 있다.

<표 4> 일반문집과 자편문집의 편차비교

	일반 문집 ²⁰⁾	자편 문집			
書名	尤庵先生集	壺谷集	簡易集	愚得錄	東州集
序文			序	序	序
韻文	賦	七言律詩	奏-封事-陳言	論學-釋義	宣慰錄
	五言古詩	七言絕句	表箋-呈書	論禮-論理	從軍錄
	七言古詩	五言絕句	祭文-上梁文	序記	嶺南錄
	五言絕句	七言排律	墓誌-墓碣	詩	嘉林錄
	七言絕句	五言排律	記-序-跋	疏	卯酉錄
	五言律	七言古詩	四行文錄	祭文	東遊錄
	五言排律	五言古詩	槐阮文錄	書	關東錄
散文	七言律	雜體	焦眉錄		關西錄
	疏	扶桑錄	丁丑行錄		鐵城錄
	啓	附雜著	辛巳行錄		牙城錄
	書	燕行錄	分津錄		西湖錄
	雜著	課製錄	晉陽錄		斷輪錄
	記	應製錄	扈行錄		教-筭-書
	跋	儷文	...		序-記-跋
	銘-箴-撰	疏-啓			祭文-哀辭
	祝·祭文	序-記-跋			箴-銘
	碑-墓碣-墓表	祭文-行狀			傳-賦
諡狀-行狀	墓誌銘-墓表			行狀	
附錄	傳		附錄	碑銘-碣銘	
跋文					

20) 일반문집으로 1717년에 간행된 「尤庵先生集」으로 선정하였다. 송시열은 17세기이후 조선 성리학을 심화시킨 인물이며, 그의 영향을 받은 인물들이 많은 만큼 문집의 체제에 관해서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되어 선정하였다.

둘째, 내용 편차상의 변화

저자가 자신의 원고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편찬한 것이기 때문에 수록하는 내용에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문집의 수록된 書簡의 경우 고려시대나 조선초기의 문집들에서는 수록된 양이 많지 않고 설령 수록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역사적 사실이나 경전 풀이에 대한 문답 등 중요한 내용이 수록되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 문집들은 대부분 후손이나 제자들이 편찬하였기 때문에 저자의 서간을 모두 수집하려 하였고 그것들을 수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자편문집의 경우 저자가 스스로 편찬한 것이기 때문에 서간은 수록되지 않거나 소수의 양만이 수록하고 있다. 서간이라는 것이 저자가 타인에게 보낸 편지글이기에 저자 생존에 그 글들을 다시 회수하여 수록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일반문집은 위에서 예로 든 『尤庵先生集』 경우 서간은 약 300편이 수록되어 있고, 『栗谷全書』의 경우 약 90편이 수록되어 있다. 이와 반대로 자편 문집의 경우 『湖陰雜稿』, 『芝峯集』, 『澤堂集』, 『谿谷集』, 『壺谷集』 등은 서간이 한편도 수록되어 있지 않고 『東州集』의 경우 6편, 『遊齋集』의 경우 10편 등 소수만 수록되었다.

자편문집은 저자가 스스로 편찬하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자신의 운문이나 산문들에 대해 잘 알고 있고 그에 따라 선정하기도 후손이나 제자들에 비해 수월했을 것이다. 자편문집 속에 수록된 작품들은 이러한 과정을 겪은 엄선된 작품들만 수록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명곡집 같은 경우도 주에 “少時作 多所焚棄”라고 하여 어렸을 적 작품들은 불태워 버렸다고 하고, 『谿谷集』의 장유도 “어렸을 적 작품들은 어러이 되고 나서 문득 불태워 버리고 중년에 잡고와 시문만을 직접 뽑아두었다.”²¹⁾라고 말하고 있다. 『象村稿』에 경우 “기축년(1589, 당시 24세)부터 계축년(1613, 당시 48세)에 이르기 까지 25년간의 작품 8책을 前稿로 삼는다.”²²⁾라고 하고 있

21) 『谿谷集』自序. “幼時所作 既壯輒焚棄之 中歲手抄雜稿詩文各如干卷.”

22) 『象村稿』自序. “自己丑至癸丑春二十五年之作八策爲前稿.”

다. 이것들을 보면 자편한 저자들은 유년 시절의 작품들이 자신의 문집에 수록되는 것을 원치 않아 불태워 없애거나 수록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유년시절 작품들은 저자의 시문 활동이 완성되지 않은 미숙한 단계이다 보니 후세에 전해지면 자신의 이름에 누가 될까 조심스러웠기 때문이다.

반대로 일반 문집은 후손이나 제자들이 저자의 작품들을 모두 수집하려고 노력하였고 수집되면 산정을 거쳐서 수록하려고 노력하였고, 실제 문집에서도 유년시절의 작품들이 보이고 있다.

셋째, 저자의 주석

앞에서 저자가 특정한 사건이나 시기에 대해서 편명을 붙여서 편찬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자편문집 속에서 저자는 편명을 붙인 시기나 이유에 대해서 註를 붙여 설명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각각의 시에 대해서도 주를 붙여 시를 작성한 시기나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최석정의 『明谷集』의 경우 운문이 시록별로 편차되어 있는데 권 1의 ‘焦眉錄’의 경우 “少時作 多所焚棄 存錄其若干故云”이라는 주를 붙여 이 편명에 대한 시기를 알 수 있게 했고, 권 2의 ‘榮川錄’의 경우 “己未春 家大人靜修公赴任榮川 時余言事獲譴 黜在城外 隨親行之郡 秋 寓居鎮川草坪莊舍”라는 주를 붙여 이 편명 속의 저작 시기와 저작의 환경을 알 수 있게 주를 붙이고 있다. 권 3의 ‘鹽城錄’의 경우 “庚午夏 赴延安任 受由往來京中 明年夏遞 延安號鹽城”라는 주를 붙여 시기, 환경, 그리고 명칭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듯 저자는 각각의 편명에 주를 붙여 시기, 환경, 명칭에 대한 설명 등 작품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주를 붙여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주는 각 편명에 대한 주도 있지만 각 작품에 대한 주도 있다. 명곡집 시 중에 ‘存窩生朝小集 仍設世講契’라는 제목의 시가 있고 그에 대한 주로 “時余欲解鹽城倅”라고 수록되어 있다. 이처럼 주는 운문이나 산문의 배경에 대한 설명,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운문이나 산문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5. 結 言

이상과 같이 자편문집의 현전본을 대상으로 자편문집의 편찬배경, 시기별 현황, 자편문집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자편문집은 저자의 자의에 의하든 타의에 의하든 편찬되었는데 저자 자신의 작품에 대한 만족감과 자신감으로 그의 작품들이 산실되지 않고 후세에 전해져 자신을 잊혀 지지 않길 바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편찬된 것이다.

조선시대 자편문집의 최초 등장하는 것은 문헌상 서거정의 『四佳集』이지만, 초간본은 현전하지 않고, 현전하는 판본은 자편문집의 형태를 띠고 있지 않다. 조선시대 현전하는 오래된 자편문집은 『湖陰雜稿』로 저자는 자서를 써서 편찬한 이유를 밝혔고, 뒤에 다른 문집에 영향을 미쳐 자편한 문집들도 등장한다. 호음잡고 이후 많은 자편문집들이 등장하는데, 이 시기는 임란과 호란을 겪으면서 문인들의 많은 작품들이 산실되었고, 그것들을 수습하여 간행하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자편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기 한문사대가들이 모두 자신의 문집을 편찬하였다는 사실을 미루어 볼 때 당시 문인이고 자신의 작품에 자부심을 가진 인물들은 한문사대가처럼 자신의 문집을 편찬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선후기 19세기에 이르면 문집의 생산 양과 반비례하게 자편문집의 양은 급격히 줄어든다. 조선후기는 조선성리학이 심화되면서 심학이라는 것이 중심이 되었던 사회다. 심학은 자신의 수양을 강조하고 남에게 드러내는 것을 옳게 바라보지 않았다. 또한 사회적으로 후손이나 제자들이 선조와 스승을 표창하기 위해 문집간행을 주도하다 보니 굳이 저자 스스로 편찬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문집이 간행되어 후세에 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었다.

자편문집은 일반문집과 달리 다양한 편차 체제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저자가 편찬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이다. 운문이나 산문에 특정한 사건이나 시간별로 묶어서 편명을 붙이기도 하고 일정한 편차 없이 자유롭게 편차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각 편명을 붙였으면 저자 스스로 주를 붙여 그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내용 편차상 서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간이 수록되

지 않은 문집들도 있고, 소수의 양만을 수록한 문집들도 보이고 있다. 또한 자편문집들은 저자가 산정한 내용들만 수록되는데 유년시절에 지은 작품들은 완성된 작품이 아니라고 하여 불태워 버려 수록하지 않고 자신이 만족하는 작품만을 선택하여 후세에 전하려고 노력하였다.

본 논문은 일반문집과는 다른 자편문집을 유형화하여 분석함으로써 문집의 다양성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겠다. 그러나 문집의 양은 많고 다양하기에 여러 형태의 문집들이 연구되길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1. 元典

「成宗實錄」.

「中宗實錄」.

「韓國文集總刊」.

2. 단행본

金斗鍾. 「韓國古印刷技術史」. 서울: 探求堂, 1974.

柳鐸一. 「嶺南地方出版文化論考」. 부산: 世宗出版社, 2001.

尹炳泰. 「朝鮮後期の活字와 冊」. 서울: 범우사, 1992.

지두환. 「조선성리학과 문화」. 서울: 역사문화, 2009.

千惠鳳. 「한국 서지학」. 서울: 민음사, 2006.

3. 논문

金允美. “韓國文集의 編纂樣式에 關한 考察.”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2.

김윤제. “조선시대 문집 간행과 성리학.” 『한국사 시민강좌』 37(2005).

書誌學研究 第44輯(2009. 12)

서정문. “『退溪集』의 初刊과 月川·西厓是非.” 『북악사론』 제3집(1993).

辛承云. “成宗朝의 文士養成과 文集編刊.”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94.

辛承云. “유교사회의 출판문화.” 『大東文化研究』 제39집(2001).

任昌淳. “文集雜稿.” 『한국학문헌연구의 현황과 전망』 (1983).